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불교, 세계와 만나다

첫 국제회의…3000명 참가
'부산 선언'으로 '협력' 새 화두
반가상 · 승무로 '사유' 전해
한국관, 불교 유산 가치 알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기간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이 운영됐다. 사진은 서울 진관사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스님의 지도로 서울시 무형유산 '전통 지화(紙花)' 만들기를 하는 모습.



7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부산 선언'이 채택됐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해인사는 '한국관' 부스에서 고려시대 국난 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 판각 시연과 인경 체험을 진행했다.





글로벌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7월 22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다.

전 세계 문화·자연유산의 보존과 미래를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한 이번 회의에는 196개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유산 보호와 연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살아있는 유산'으로 주목

회의 기간 산사와 사찰음식, 영산재와 수륙재 등 한국불교의 유·무형유산은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그 가치를 주목받았다.

'하늘을 품은 지붕, 세대를 잇는 울림'을 주제로 열린 개막식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품고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생태 위기 앞에 인류의 성찰을 촉구한 '사유(思惟)의 문'은 단연 압권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무대에 신비롭게 떠오른 가운데, 깊은 구음(口音) 위로 불교 전통 무용인 승무(僧舞)가 어우러졌다. 기후위기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구도자의 성찰을 몸짓으로 표현해 한국 불교문화의 깊은 예술성과 정신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산사,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녀"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유산 보존 노력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던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시대일수록 문화를 매개로 한 대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채택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20일 본회의에서 21개 위원국의 합의로 채택된 '부산 선언'은 기존 세계유산협약의 5가지 전략 목표(신뢰성,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공동체)에 '협력(Collaboration)'이라는 새로운 6번째 목표를 추가했다. 유네스코가 유산 자체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이를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새로운 기조 속에서, 수천 년간 수행과 의례의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온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은 가장 훌륭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유산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훌륭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극찬했다. 나예프 알 파예즈 사무총장보 역시 유산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국불교 유산에는 단순한 국가유산을 넘어 사찰음식과 명상에 이르기까지 깊은 철학적,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한국 유산의 진면목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협력의 해답을 '살아있는 유산'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세계인 매료시킨 K-불교 체험

불교계는 회의 기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운영된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서 불교 유·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렸다.

개관 첫날 'K-헤리티지 스테이지' 주무대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봉원사 영산재'가 장식했다. 유네스코 측의 특별 요청으로 마련된 이 무대에서 스님들은 장엄한 법고와 바라춤으로 국가의 평안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봉원사 주지 현성 스님은 "영산재의 범패는 우수한 한국 3대 전통 음악"이라며 "포용적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도 한국불교의 가치를 알렸다.

해인사 부스에서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의 '인경(경전 인쇄)'과 '판각' 시연이 열기를 띠었으며, 장경판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3D·VR 체험도 제공됐다. 통도사 부스는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해 '금강계단 사리탑'을 향해 예불을 올리는 대웅전의 구조를 빛으로 구현해 내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였다.

또 600년 역사의 서울 진관사는 산자와 죽은 자를 평등하게 위로하는 '수륙재'를 테마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수륙재 전물(奠物)을 전시하고 서울시 무형유산인 전통 '지화(紙花)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국행수륙재 시연도 선보였다.

통도사서 직접 느낀 세계유산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통도사를 직접 찾아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수행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소속 펠로우 및 인턴 동문은 7월 22일 '2026 WHIPIC 동문 워크숍' 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도사와 경내 암자인 서운암을 순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답사는 세계유산 제도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유산 현장에서의 공동체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답사단을 맞이한 통도사 연수과장 수진 스님은 통도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보편적 가치를 설명했다. 수진 스님은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佛寶) 사찰"이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복합 수행 공간을 현재까지도 온전히 보존·유지하고 있는 뛰어난 도량"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일주문, 천왕문, 중로전을 거쳐 대웅전과 금강계단에 이르기까지 가람을 순례하며 한국불교 특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칼튼대 교수(ICOMOS 캐나다 위원장)는 "다른 동아시아 건축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국 건축만의 고유한 매력과 결합 방식을 통도사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보존 상태와 현장 전시 방식에 감명을 표했다.

이어 서운암으로 이동한 답사단은 16만 도자대장경과 개방형 수장고에 전시된 옻칠·도자 예술 작품을 관람하며 한국불교의 뛰어난 기록 문화와 예술성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다.

이 밖에도 26일 사찰음식 맛보기와 조계종 미래본부 주관 선명상 체험, 27일 범어사 사찰음식 만찬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줄을 이으며 세계유산 전문가들에게 잊지 못할 K-불교의 매력을 선사했다.

〈차주 상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